

◇'94목욕 대동마당을 진단한다

총학·각 단과대 중앙 기획행사 미비 대중적인 참여 방안 모색해야



'94목욕 대동마당'을 며칠 앞두고 나온 사회과학대 학생회의 대동제 기획안에 보면 행사준비에 관한 것과 함께 재미있는 내용을 다룬 글을 볼 수 있다.

지난 대동제의 단상과 예상되는 대동제는 소재를 단-이 글을 통해 전체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점의 설치로 학내의 무척 혼란스러울 것이며 강의실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 저녁이 되면 뒤풀이를 하는 학우들로 혼잡거리게 될 것이다.

셋째, 백상공연만이 만원을 이룰 것이고 준비 못한 총학생회 행사는 소수 학생들만이 참여한 채 진행될 것이다.

넷째, 많은 학우들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여행을 간다는 고충집에 다녀올 것이다.

여기에서 차마 언급되지 못했던 점들을 몇가지 덧붙이자면, 행사를 소개하는 대자보, 포스터, 인쇄물들과 주점에서 나오는 오물 그와 각종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져 행사가 끝나는 13일에는 동양내 수북히 쌓인 몇몇 더미를 만들것이며 여기에는 부서진 기물과 집기들도 한뼘 할 것이다.

또한 대동제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학생신분을 망각한 모습들이 행사 기간중 심심찮게 보여질것이며 소비지향적인 자본 사회의 축제로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도 눈에 띈

것이다. 이상의 상황들은 대동제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며 불행하게도 (!) 올해 대동제도 이러한 예상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대동제=술판'이라 서슴치 않게 말할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것인가?

그러나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대동제의 문제점들은 일단 미뤄두고 지난 11일부터 3일간 펼쳐진 '94 목욕 대동마당'만을 되돌아보자.

먼저 눈에 띄게 아쉬웠던 점은 총학과 각 단과대에서 준비하는 중앙기획행사의 미비이다.

총학에서는 개막제와 폐막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행사를 준비하지 못했으며 각 단과대에서도 뚜렷한 기획 없이 대동제를 보내는 것이 많았다.

이는 학기초부터 계속되는 학생회 내부 문제로 대동제에 쏟을 여력이 부족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눈을 피해 크게 늘어난 주점들도 이번 대동제의 문제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즐기기의 대동제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상업성에 치우친 행동들-몇몇 주점에 서는 후문앞 편의점에서 1천원에 구입한 막걸리를 몇걸을 옮겨 2천원으로 둔갑(?)시켜 팔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들 속에서도 새롭게 시도된 몇몇 기획행사는 좋은 본

모기를 남기기도 한다. 동연에서는 대동제 기간인 지난 12일 '체험 민중현장'이라는 행사를 준비해 94학번 새내기들이 노동자들과 하루일과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후 이들은 "말로만 외치던 노학연대를 몸소 체험할수 있는 자리였으며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대중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5명이라는 소수의 참여 속에 끝없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과, 동아리들은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전시회등을 마련해 매년 대동제의 체면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매년 같은 내용을 답습하고 있어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러한 행사를 마련하는 학과, 동아리들은 아직 전체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회계학과와 연극영화과 등 몇몇 학과에서는 대동제 기간동안 모든 수입금을 선금으로 내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동제에서도 역시 '동악발' 전의 상을 만들어 나가기(총학 대동제 기획안중)에는 여부족이 었다.

무엇보다도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것 같다.

(허동혁 기자)

동국중흥 큰잔치 무기한 연기

동국중흥큰잔치 준비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 2시 학생처장실에서 노관섭(식품공학)서울캠퍼스 학생처장, 이정원(미술학) 경주캠퍼스 학생처장, 김영환 총동창회 사무국장, 선상규 서울캠퍼스 학생과장, 고정환(야간 경제4)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박영규(철 4) 경주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전현철(야간 법 3) 경주캠퍼스 학원자주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한달여만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올1학기 내의 행사 강행은 무리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각 주체의 입장을 정리해 재논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주캠퍼스 학원자주추진위원장 전현철군은 오는 2학기에 열릴 예정인 총동문 체육대회 시기에 맞춰 행사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사격부 전국대회 단체 우승

경주캠퍼스 사격부(감독=김용기·학생과장)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태릉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연맹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해 소구경복사에서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10개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5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대회에서 4종목 총7명이 참가한 본교 사격부는 개인전에서 4명이 입상했다.

단체우승은 △공기소총=단체우승, 개인2위(최병우·관경4) △소구경복사=단체우승, 개인2위(최병우·관경4), 3위(김동명·관경1) △소구경3자세=단체우승, 개인1위(최병우·관경4) 등이다. 한편 정은재(관경·4)주장은 "코치도 없는 상황에서 훈련하기도 힘들었는데 직원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94학년도 예산안 확정

'94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예산내역이 총6백56억5천1백98만3천원으로 최종 확정된 집행을 들어간다.

확정 내역을 보면 내년 본교 대학종합평가 실시를 감안해 14% 등 록금 인상률에 상응할 정도로 실험실습비가 포함된 학생경비가 1백억 3천8백9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4억여원이 인상되었고 연구비가 17억여원이 오른 62억8천7백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납입금은 5백31억6천5백44만1천5천원으로 작년 80.7%보다 오히려 의존률이 0.2% 오르고 재단 전입금이 40여억원에 머물러 있어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교육의 질적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다. 학교의 전체 수입이 납입금에 의존하는 실정이 안타깝고 앞으로 재단전입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밝혔다.

봉축법요식

정각원(원장=한보광·선학)은 부처님오신날 맞이 법요식을 오늘(18) 오전9시에 정각원법당에서 갖는다.

통일노래한마당

제7회 통일 노래 한마당(이하 통일노안)이 '95년 통일의 문을 열자. 제7회 통일 노래 한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25일 오후 5시에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불교대학원 학술발표회

국제학술발표회가 불기 2538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서 오는 23일 오후3시부터 7시까지 동국관(L401)에서 열린다.

양통방(중국 북경대·한국학연구원) 교수가 '한·중문화교류의 과거와 현재'를 영부정준(미국 하버드대)교수가 '인도·중국불교의 자연관'을 그리고 러대길(중국 사회과학원·세계종교연구소)교수가 '중국의 소수민족과 불교'를 발표한다.

교수동정

▲홍윤식(역사교육)은 '개방화시대 문화교류란 주제의 학술회의 준비차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동경체류.

보리수

참회의 등불

불교도의 최대 명절인 사월초파일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도 뿐만이 아닌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이다. 불초행사의 하이라이프이기 부처님의 목욕(灌佛)과 연등(燃燈)의 행사는 우리들의 마음에 어두운 구석에 진리의 등불로 밝혀 주시는 아기부처님의 오심을 경축하는 것이다. 귀여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절에 가서 반가운 친척들과 이웃들을 만나며 조그마한 예쁜 연등을 밝히고 새로운 생활을 위한 소원을 빌기도 한다. 불비니 동산의 꽃의 축제는 올해도 오월의 신록에 묻혀 아카시아 꽃 향기 속에 어김없이 찾아 왔다.

그러나 반갑고 기뻐해야 할 이 축제가 올해는 왜 이렇게 서글픈 마음을 갖게 하는가 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한 사람의 아픔의 미증이 미치는 결과 앞에 왜 많은 선량한 대중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이다. 종단은 광복이후 몇차례의 큰 사건들이 있었다. 1960년대의 비구·대처의 정화(正化)와 1980년대의 10·27법난과 1994년 4·10개혁신동이 그것이다. 특히 이번의 개혁신동은 부패된 종단의 자정(自淨)을 위하여 의식(意識)과 제도를 개

종단에서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참회의 등불을 밝히자고 하였다. 모든 잘못을 자신의 수행의 부족으로 돌리고 새로운 서원으로 정법(正法)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균여스님은 보현심원기에서 '연기(緣起)의 이치에서 보면 미(美)와 오(惡)가 하나이고 부처와 증생이 둘이 아니라고 하였다. 참회의 등불 앞 부처님의 미소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崔法憲**

제36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대학원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피헤쳐 나갈 의의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모집인원: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②응시자격:1학년 남·여 재학생
- ③모집분야:일반 및 만화·사진기자
- ④제출서류: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⑤원서접수:서울 6월 2일(목) 오후 4시까지 경주 6월 2일(목) 오후 4시까지
- ⑥시험일자:서울 6월 2일(목) 오후 5시 경주 6월 2일(목) 오후 5시
- ⑦시험과목:1차 필기-상식·논술(만화·사진지원은 실기)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⑧원서제출처:본사 총무부
- ⑨시험장소: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정액급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동국대학교



"88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민족사학 동국대학교" 21세기를 준비할 새로운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빠르지 않으나 쉬임없이, 조급함 없이 용맹정진하는 기상으로 오늘을 갈무리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성실한 동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교수초빙

□1994학년도 제2학기 초빙분야 (서울캠퍼스)

학과	전공분야
불교	불교경제론
영어영문	영어회화(외국인)
수리	대수학
물리	고체분광학
정치외교	정치사상
행정	인사행정
경찰행정	경찰학
경제	환경경제학 및 경제발전 성장론
정보관리	분산정보처리시스템
산림자원	임업경영학 및 정책학
기계공	유체공학
토목공	수문학
국어교육	현대문학
지리교육	지리교육 전공자로서 환경지리를 강의할 수 있는 자
북한	북한정치

(경주캠퍼스)

학과	전공분야
전자계산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
전산통계	전산통계(프로그래밍 언어)
산업	전기안전공학(교전압 및 정전기)
한 의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물리요법과, 침구과
의	해부학, 내과(신장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1.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간명

2. 자격
 -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1949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의학계열은 예외)
 - 다.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분
 3. 제출서류
 - 가. 이력서(전공분야 및 전화번호를 우측상단에 명기, 명함판사진 부착)..... 2부
 -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명서류)..... 각 1부
 - 라.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일자 명기)..... 2부
 - 마. 연구실적물(학위논문과 '90. 9. 1이후 발표된 논문 및 저서)..... 각 1편
 - 바. 임용후 수행할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 1부
 - 사. 전문의 자격증사본(의학계열 지원자에 한함) 1부
 4. 제출기간
 - 1994년 5월17일(화)~5월20일(금) 17:00까지
 5. 제출처
 -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무과(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6. 기타
 - 가. 외국어로된 증명서는 본인이 납인한 번역문을 첨부
 - 나. 서류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26
 ☎전화 (02) 260-3031~4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611770-2031~4

동/문/칼/럼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학시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절이다. 자기능력을 발전하고, 자기 지식을 배우고, 함께 고민할 친구들을 만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 배움을 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시대의 대학은 본래의 대학 모습이 아니었다. 유신시대의 대학생활이란 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행동의 자유도, 독서의 자유도 없었던 그야말로 침묵의 시대였다. 항상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었고, 두려움에 가슴 무거웠던 기억뿐인 대학생활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고, 이러한 사회속의 대학생활은 진정한 의미의 진리 탐구와 뜻을 세울 수 있는 시절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민주적, 민족적 과정이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활속에서 뜻을 세우고 찾아나가기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적, 민족적 과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민주적, 민족적 과정에 대학생활에 많은 짐을 지워왔지만, 이제는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그러한 과정들을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겠는가.

대학에서 갈고 닦은 진리와 정의의 뜻이 이 사회의 여러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사회의 각 곳곳에서 들어가서 노력해야 한다. 암자에 맞서서 처절한 투쟁을 해왔던 암울한 대학생활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창조적인 내일을 이어나

기하는 대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온 것은 과거에 필사즉생(必死即生)의 각오로 싸웠던 선배들의 투쟁이 이루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4.19 민주혁명과정에서 산화한 동국대생, 5.18 광주민주화운동과정에서 쓰러져간 동대생, 민주화운동에 열심이었던 노일현, 강제징집으로 독재의 마수에 쓰러진 윤순이 등 수 많은 선배들의 죽음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가.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없다. 보통사람들이 지위와 자리, 돈, 명예를 탐하고 살아갈 때 민족의 문제, 민족의 과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다가 쓰러져간 선배동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누구나 하려고 하는 일보다는 누구나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일에 자기희생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민우 (전 반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사 75쪽)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80-3491·2 (0561)770-2057

무질서한 시험감독 아르바이트 신청과정 학생들의 의견수렴 문제 해결 고민 필요

지금 동대에는 많은 행정직원들과 학생회 일꾼들이 있다. 분명히 그들의 활동목적인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 자신들도 말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학생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생활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피해를 당할 때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자세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바라보았는가?

이 적혀있다. 분명히 동대에는 총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와 학교당국(취업과)이 있다. 그러나 그날 동대신문에는 '총학생회장 사퇴'가 1면머리기사로 실려있었고, '학복위장 없는 학복위'는 이미 학우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학우들의 대표조직이 아니었으며,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해결을 고민하는 곳으로 생각될 수 없었다.

이제 학우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학우들은 언론사가 앞장서서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학교 곳곳에서 벌어지는 행정편의주의를 고발하고, 학우들의 복지상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를 원했다. 또한 '총학생회장 없는 총학생회'와 '학복위장 없는 학복위', '학교당국은 이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

강성구 (사법대 교육학과)

'94 입학대동제를 바라보며 대학가에 판치는 상업주의에 실망

94년 입학 대동제, 대학의 대동제로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남겼을까? 축제, 대동제라 했을때는 예전에 유신시대, 전종시절 억압받고 눌려지던, 젊은 열기의 분출의 공간. 그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 되는 장이라고 할수있다. 90년도에 입학해 해서 두번의 대동제를 보고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해서 봤을때 조금은 실망을 하고, 조금의 질적저하, 그리고 아무런 것 없이 대학가에 판치는 상업주의에 과연 이 대동제가 대동제일까라는 의문마저 들었다. 11일(수요일)부터 시작해 14일(토요일)까지 대동제를 하면서 학생회관 앞의 주점을 헤이러 왔다. 19개의 허가주점과 2개의 불법주점(20만원 벌금내고 허용했다고) 그리고 분식점 10여개, 그외의 상업적 목적의 코너 몇개, 물론 환경을 좀 판대나, 전교조 물품판매도 있었으나 무엇인가 같이 보고 배우고

고유할수있는 행사보다 돈벌기위한 치졸한 시장판으로 변해버린것 같았다. 얼마전 연세대학교에서 서바이벌(전생게임)게임을 대동제 기간중 총학생회 주관으로 하다 매스컴뿐 아니라 일반학우들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우리학교에서도 해변동지회에서 화랑대의 이름으로 규찰을 썼었다. 어떤의미에서는 해변동지회가 규찰을 함으로서 사고의 예방및 방지에 기여를 했다고 하나 학원의 대동제에서 군복을 입고 화소리 울리며 다니는 군사주의적 문화의 잔재들을 볼수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 다. 그리고 행사들중에서 특별나게 보고싶었던가 듣고싶었던 강연회가 별로 없었다. 매년 대동제 때마다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정대준씨 초청공연이나 임수경 초청 강연회, 중단개혁신진전및 비디오 상영발고는 별다른 행사가 보이지

않았다. 월요일 방송국 방송중에 문화행사가 23가지라고 들으면서 문화행사가 그렇게나 많았나 싶으면서도 못본게 그렇게 아쉽지 않은것은 왜 일까? 뿐만 아니라 주점마다 불수 있었던 시원한 비키니 차림의 여성모델들, 주류시장의 과당경쟁이 심하다는 말을 신문들 보고 알았지만 대학에서조차 이렇듯? 왜 이래야 할까? 으레히 축제때가 되면 한군을 리겠다는 생각에 술등 각종잡화들 갖다놓고 기성세대의 상술을 적용시켜 대동제를 허가된 상점매매의 장으로 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남는것은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과 끝난후 난장판이 되어버린 학교를 치우는 이저서 아줌마밖에 없다. 이제는 좀 달라지자 하지 않을까?

허은석 (자연과학대 조경학과)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총회장 사퇴기사 충격

지난주에 동대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던 일을 뽑으려면 지난호 동대신문 1면 TOP기사였던 총학생회장 사퇴를 누구나 뽑을 것이다. 그 만큼 타고에서도 없을만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총학생회의 무책임을 묻고 싶을 정도였다. 지금 동대는 아무일 없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이 사건이 동대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대단한 것이다.

'우선 앞으로 비어있는 총학생회는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또 남은 기간 동안의 학교운영은 누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것 같다.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 것만큼 총운위나 총대의원회는 사태수습에 가장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만큼 모든 동대인이 모두 수긍할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었으면하는 바램이다.

김영재 (이과대 통계학과 분사모니터)

제도적역할 충실하길

동대신문이 다양한 내용의 글을 담고 있었던 점이 우선 좋았다. 여론면에 '자유발언대'라는 새로운 독자기(교수·직원·동문·학생)참여 하는 고정 투고란이 생긴것을 제외하더라도 사회, 학술, 문화면에 다양한 내용의 글들이 실렸던점 아직도 논문형식의 글이 없지 않지만.

UR과 문화면의 문화제국주의 등은 우리들의 올바른 시각 형성에 기여 했다고 본다.

그런데 아무리 동대신문이 주간이지만 시기성에 맞지 않는 취재기사가 보이는데 이런기사는 지양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속에서 영원히 묻혀 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뜨거웠던 민중의 외침을 다시말이 하는 오늘 동대신문이 활자를 통해서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며 자신의 곁집을 스스로 깨지 못하는 학우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보여주는 제도적역할에 항상 충실하기를 바란다.

김필중 (법정대 이과법학과 분사모니터)

오늘을 사는 동국인 - 강덕화 동문



지난 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되었다가 올해 아주중학교에 복직한 강덕화(국문84졸)동문, 복직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기에 그에게는 더욱 남다른 의미가 있다.

'스승이란 호칭이 아직도 어색하긴 한다'는 강동문은 "스승의 날"이 점점 형식적으로 전락하는 거 같아 답답지 않다"며 "교육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해진다"고 말한다.

'해직전과 복직후 교육현실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란 물음에 강동문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라고 감탄(?)한다. 외형적인 시설은 좋아졌을지몰라도비민주적인 구조는 그대로란다. 반면 아이들은 너무 많이 달라져 처음엔 어떻게 대할지 당황하기도 했는데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X세대인들을 실감한다고. 교과내용또한 많이 바뀌어 요즘은 교재연구하느라 바쁘다고 한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참교육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강동문은 아이들에게 군림하기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해직시 전교조 출판국장을 맡아 전교조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던 강동문은 "일괄복직"을 선언했던 전교조에 대해 권력의 힘을 과소평가해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내려왔던 오류를 지적지만 그 뿌리는 아직 남아있고 그 존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젠가 앞장서는 책을 인용, '이제는 현실투쟁에서 역사투쟁으로 이어간다고 얘기하고 싶단다.

"교사가 해야할 일은 끝이 없는 것 같다"는 강동화 동문은 천상선생님일 수 밖에 없음을 말한다. "아침에 눈뜨면 아이들을 만난다는 사실로 즐겁다" (김소영기자)

목욕골

축하합니다.

■종범이의 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재정, 성지

■승운아 M.T때 정말 미안했다. (성철이도...) 그리고 생일 축하해! -소나무의 누구

■성지야! 생일 축하한다. -C.C로 부터

■김공 '94 조성지의 19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Mr. 黑心 외 '소나무'일동

■지났지만 순의 재능아! 성년이 된걸 정말 축하해! -수고 '93들이

■지리교육과 올해 성년되시는 아해(?)아니 어른신네를 축하드립니다. -'92 춘재

■예쁜 경희와 종남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요한 날, 거룩한 날 -국교4 윤

■20일 경미야 머리빠진 날 축하한다. -'94 일문과

축하합니다.

■문과대 선전일꾼 정화와 윤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동일 문과대 일꾼들

■아버님, 어머님! 따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윤

■효정선배! 생일을 축하해요 부처님 오신날 태어나면 뭐가 인생이 달라지기도 할까요? 생일축하한다는 말보다 고대사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더 듣기 좋겠지요? -'94 고대사 후배

■기택이 오빠 지년간 생일이지만, 축하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회계 수정

■미영, 현준 생일을 축하한다~네!! -나, 그리고 사회학과 '94

■동노협 아그들이 '통일노래 한 마당' 화끈하게 치뤄보자. -동노협 객원기수

수고하셨습니다.

■가교과, 아그들~ 전통음식 판매하느라 정말 수고하셔요! 가교과 화이팅~ -'91 언니들

■하나님으로 더욱 커지는 역교! 동문체육대회 준비하느라 모두 수고하셔요! -'94 일문과

■선철아! 잘가래이~ -동기자

동/악/광/장

알립니다.

■광주 대동고등학교 동문을 찾습니다. 쿨공 94학년 김수현입니다. 연락주세요. -제36기 수소비들이

열심히 합니다.

■지리교육과 학우 여러분 우리 끝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호우선배

■우리 14·15기 아그를 주점하는라고 욕했다. 창립 잔치, 한주일 더 애써라. -D.YH '91 현

■왕재야! 힘내라! -'91

그리고...

■국어교육과 3학년 선배님 수학여행 잘, 재밌게, 건강히 다녀 오세요. -94학부 국교 화이팅

■국어교육과 4학년!! 졸업 여행 잘 다녀 오자!! 지리산이 부른다. 아~호. -'91 언니들

■선철아! 잘가래이~ -동기자

온방골

축하합니다.

■우리 '15기, 16기 애들이. 먹거리하면서 수고했고 윤정이 기쁨이 정후이 제와나의 성년식도 함께 축하한다. -D-K-B-S 13기 수습일동

■중애형, 정영이형, 진숙이형, 말순이형, 정아형, 재현이형이 성년이 됩니다. 많이많이 축하해주세요. -D-K-B-S 13기 수습일동

■지났지만... 성년의 생일 정말로 정말로 축하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길. -선비와 뭇나이를

■무사히 끝난 먹거리를 축하하며, 뒷날도 무사히 끝났음. -HAM 부원 중 누구

■해식이 언니, 좋은 후배가 못되어서 너무 미안하구요. 진짜 어른이 되신 것 축하드려요. -후배 현주자

■5월 16일은 노래패 모디의 세를 잔치합니다. 많이많이 축하하구요. 앞으로도 열심히 민중가요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래요. -최정

■사랑하는 영신, 민정아 성년식

■수고하셨습니다. R-A-C회원모두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사 잘 합시다. -R-A-C인

■행정93선배님들. 성년이 되신걸 축하해요. -행정94후배 영아, 정희

■주막 씨빙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3기 여러분! -기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대 연합 동문인들. 축제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आयुष्य를 기대합시다. -'91

■전산주막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선화, 열랑, 정만, 영준, 상영 그의 후배 여러분들. -자연대 부회장

■경제학과 선배님들. 동거여러분, 주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 94

■서라벌다우회 조다행사 무사히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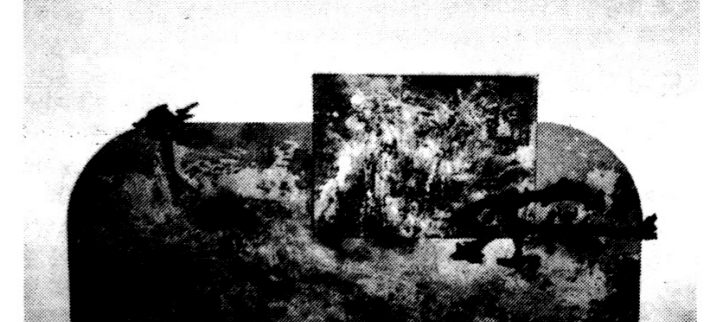
■철학과 여흥비 공연 준비하느라 모두들 수고하구요. 무사히 공연을 마쳐 고맙습니다. -철학인 중

■가정교육학과 분식점하시느라 무지 수고하셔요. 여자들이 동치면 못하게 없다는 걸 우리 보여주자구요. 앞으로 열심히 민중가요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래요. -가교인

■HAM 먹거리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71

철어(鐵魚)

김윤섭 (예술대 미술학과)



(미술학과 전시회 '네오위에 정하나' 작품중에서)

작품설명 너무나 병폐된 현실의 환경속에서 그전에 맑은 물에서 살던 고기모습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철로 만든 아주 튼튼한 물고기여야만 이런 파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가슴아픈 현실을 '철어'를 통해 상징화 한다.

축하한다. 성현, 도연이도

■수고하셨습니다. R-A-C회원모두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사 잘 합시다. -R-A-C인

■행정93선배님들. 성년이 되신걸 축하해요. -행정94후배 영아, 정희

■주막 씨빙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3기 여러분! -기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대 연합 동문인들. 축제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आयुष्य를 기대합시다. -'91

■전산주막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선화, 열랑, 정만, 영준, 상영 그의 후배 여러분들. -자연대 부회장

■경제학과 선배님들. 동거여러분, 주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 94

■서라벌다우회 조다행사 무사히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나

■철학과 여흥비 공연 준비하느라 모두들 수고하구요. 무사히 공연을 마쳐 고맙습니다. -철학인 중

■가정교육학과 분식점하시느라 무지 수고하셔요. 여자들이 동치면 못하게 없다는 걸 우리 보여주자구요. 앞으로 열심히 민중가요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래요. -가교인

■HAM 먹거리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71

■수고하셨습니다. R-A-C회원모두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사 잘 합시다. -R-A-C인

■행정93선배님들. 성년이 되신걸 축하해요. -행정94후배 영아, 정희

■주막 씨빙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3기 여러분! -기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대 연합 동문인들. 축제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आयुष्य를 기대합시다. -'91

■전산주막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선화, 열랑, 정만, 영준, 상영 그의 후배 여러분들. -자연대 부회장

■경제학과 선배님들. 동거여러분, 주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 94

법이란 모르는게 약이고, 앓을수록 편안하다. 법이 없을 때는 참으로 평화스러웠고, 법을 모를 때가 정말로 자유스러웠다. 도덕과 윤리는 법보다 선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에는 조항이 없다. 이 세상의 가장각색의 증상은 자연법칙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니 어김도 충동도 없다. 그러나 인간만이 자연법칙을 거역하고 도덕을 모른체 하고 윤리를 깔아뭉개고 살게 되어서부터 세월이 생기고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법이란 방종하는 욕심을 억누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인간이 과다한 욕심을 부리고 욕심대로 안된다고 화를 내어 포악해지고 어리석어져서 온갖 질서를 어지럽히고 현실을 파괴하게 되므로, 종교에서는 계율을 만들어 수행하여 진리에 부합하고자 하고, 사회에서는 법률을 만들어 질서정연한 평화로운 삶을 공평하게 갖도록 하고 있다.

계율이란 어리석은 법에서 지혜로운 성역으로 가는 사다리 같은 것이어서 때때로 고쳐질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은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의 각종 단체의 형태에 따라서 때때로 고칠 수 있다. 국가의 헌법과 각종 시행법칙이 필요에 따라 고쳐지고 있듯이, 종교단체에 있어서의 종헌과 중법도 단체의 운용상 목적과 편의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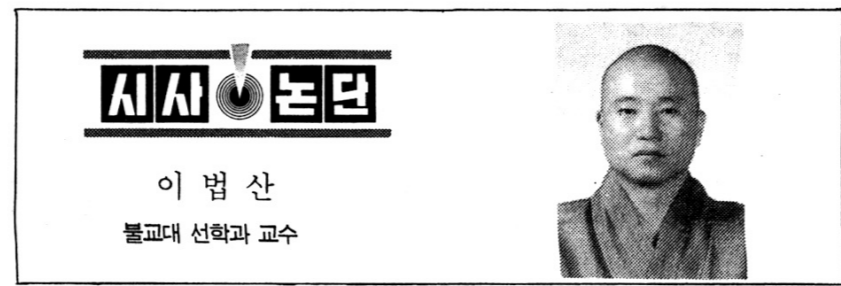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고쳐 보아도 양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양심은 법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일이 터지고 체제가 바뀔 때마다 법을 바꾸라고 바꾸는 것이 상례처럼 되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고는 새로운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을 고쳐서라도 양심을 개발하여 다수의 복리를 지켜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대한불교 조계종이 갈등과 대립을 일소하고, 명색(繼과 財)의 전횡을 고쳐, 부

처님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화합교단 수행종단의 새로운 틀을 마련코자 개혁의 단계를 높이세우고, 민인이 공감하고 해행(解行)이 일치할 수 있는 종헌중법을 개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자각각타(自覺覺他)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보이고 있다.

이미 개혁회의에서 개정될 종헌중법의



이 법산 불교대 선학과 교수

어지고 권력의 형평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총무원장과 본사주지는 단임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할 경우 임기의 반(半)으로 제한해야 한다. 총무원장과 본사주지는 본말사주지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에 인사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총무원장, 본사주지, 종회의원은 민

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지의 불안으로 인하여 주지나 이권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상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반드시 종헌중법에 명시되고 시행되어야 할 요건이라 생각한다.

실로 아무리 훌륭한 법이 제정되었더라도 양심적 실행이 문제이다. 법이란 인간이 증생심으로 만든 것이기에 허점과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예가 허다히 많으므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양심적 실행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인류의 스승 역할을 하며 사회의 더러운 부분을 맑고 밝혀, 인간의 심성을 개발하고 평화로운 복지사회를 만드는 주역인 종교인의 조직적인 종헌중법이 만능 하나라도 헛되이 다루어지면, 이 사회의 구약은 누구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계종의 개혁운동은 정치권의 잘못된 인식과 언론의 과대보도로 불교도들의 적지않은 회생을 불렀다. 이제 심기일전하여 전통도가 동참하는 개혁의 물결이 불교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정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해이해오던 계율정신을 더 높이고 수행종단의 면모를 가다듬어, 수도하는 스님의 모습, 세상을 밝히는 성직자의 등불을 유감없이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이번의 개혁 종헌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법으로만 답된다면, 대중의 시선은 영원히 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을 떠날 것이며 이로 인해 불교는 더 없는 나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불교의 목적인 성불로 가는 길, 깨달음의 사다리인 계율을 생명으로 여기는 승단이려면, 대중의 여망을 저버리는 종헌중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총무원·종회·호법원 독립으로 권한분리를

종헌중법 개정 이렇게 해야한다

초안이 마련되어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 종도와 대중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훌륭한 종헌중법이 만들어지기를 염원하는 일원으로서 몇가지 요망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총무원이 권력의 아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총무원과 입법기관인 종회와 승단의 기강을 세우고 정법을 수호하도록 감독하는 호법원이 독립되어야 한다.

둘째, 권력의 전횡을 막기위해서 결의이 금지되어야 한다. 총무원장 및 간부, 종회의원, 호법원장 및 간부, 그리고 본사 주지는 결의하지 않아야 권력형포와 독주가 없

주적 방법에 의한 자유, 평등, 비밀을 보장하는 선거로 뽑아야 한다. 다만 피선거권과 선거권자의 자격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다섯째, 종단의 사업은 교육, 포교, 복지의 3대 사업으로 하고 별원으로 하되 예산도 독립하여 집행토록 해야 한다.

여섯째, 예결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각사항의 재산관리는 주지를 위원장으로 하고 신도인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해야 한다.

일곱째, 선원의 수행승과 승가대학의 학생 그리고 승려의 노후 복지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승려들의 노후복지가 해결되지 못하면 수행자가 마음놓고 수도에 전

도서관을 진단한다

시설낙후의 문제점과 대책

도서관에 원하는 것

지난 대중제기간 중 학내 동아리 통계조사연구회에서는 '동국대 의식조사'결과를 게시했다.

제시된 조사결과에 도서관이 학내시설중 가장 낙후한 곳으로 꼽혀 있었다. 또한 도서관 개선사항중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는 열람실 24시간 개방(52.5%), 냉·난방·환기시설의 보완(15.0%), 열람실 책·결상교체(11.0%)등을 들었다.

이밖에도 응답자들은 도서관 이용시 도서부족, 열람실 부족(33.7%) 등을 불편사항으로 '답했으면 도서관 내 문구점 설치, 열람공간 재배치 등의 기타 개선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개선사항 대부분은 현실가능성이 없는 예기거나(재고의 여지가 없거나) 혹은 진행예정사항

이기도 하다. 열람실 24시간 개방은 이미 지난 86~7년 대부분의 대학이 이를 추진할 때 비교적 성실하게 실시했으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나 무산됐다. 24시간 개방이 진행되자 사설독서실처럼 일부 학생들이 한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거나 술먹고 열람실에서 자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 때문에 대다수 대학에서 이런 이유로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게 됐으며 본교 또한 마찬가지다.

열람실 책·결상교체에 대해서는 도서관 열람과적이 올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층의 낡은 기물과 칸막이가 있는 책상을 일부 교체할 계획이다. (1층 열람실은 칸막이 없는 책상으로 얼마전 교체가 끝났다.)이렇듯 학생들의 요구사항 중 몇가지는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도서관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개선요구사항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딪히는 벽들

냉·난방·환기시설 보완요구는 매년 등록금협상때마다 제기되었으나 몇번의 공사·설비가 진행된 것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환기시설의 경우 현재 1층은 닥트(진공흡인)형식의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4층열람실의 경우 지붕에 큰 환풍기를 설치해 놓고 있어 효과면에서나 소음등에서도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이 공조체제로 운영될만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탓에 지금의 환풍기는 소음, 온풍기는 소음과 낮은

효율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 관계자들은 산소부족 해결, 습도 조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풍, 냉·온방의 자동조절 설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또 예사이다

이러한 열람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관리처에서 밝힌대로라면 학내 스태프시설을 갖추기 위한 기공안을 작성중이고 도서관도 이와 더불어 설비를 갖출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언제 가능케 될런지는 의문이다. 당장 환풍기시설문제에 대해 닥트시설교체가 건의되었지만 흡풍설

비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가 복잡하고 예산소요가 막대하며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던 학교당국이기 때문에 '계획중'이라는 말로 참고 기다릴 심리가 가지 않는다.

앞서 통계조사연구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도서관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살펴봤지만 역시 방만은 학교당국의 도서관에 대한 예산 우선 배치가. 학교당국의 도서관 환경에 대한 조사와 대안 마련(대학평가제 항목에 연연하지 않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수로

(본사 전 편집장)

다음호에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도서관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환풍·냉온방 미비... 교육환경 저해요인

설비마련 시급, 학교측은 여전히 '계획중'

중국만정

김성남



'94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예산

(학교비+기성회비)

(단위:천원) (학교비+기성회비)

(단위:천원) (학교비+기성회비)

(단위:천원)

수입의부		지출의부	
계정 과목	금액	계정 과목	금액
납입금	53,165,445	인건비	31,533,879
수수료	837,100	봉급	9,034,779
임시수수료	745,100	정액수당	9,392,677
기타수수료	92,000	상여수당	5,582,074
전입금 및 기부원조금	4,753,500	정근수당	1,636,037
전입금	4,240,000	기타수당	1,295,960
기부금	500,000	강사료	2,668,752
국고보조금	13,500	노임	15,600
기본재산수입	70,000	지정인건비	1,908,000
교육용 기본재산수입	70,000	여비	306,400
사업수익	750,000	수용비	2,510,000
사업수익	750,000	피복급량비	1,759,460
기타수입	2,395,838	제세공과금	47,100
유동자산수입	430,000	판공비	126,000
선급금회수	430,000	시설유지비	1,823,760
		교육훈련비	78,500
		행사비	197,050

수입의부		지출의부	
계정 과목	금액	계정 과목	금액
투자자산수입	100	박물관관리비	52,400
유가증권	100	학생경비	10,038,910
매각대		실험실습비	1,224,130
제적예금	3,250,000	학생복지비	8,814,780
인출		입사관리비	745,100
특별사업직립	250,000	인건비	100
예금인출수입		입시경비	745,000
임의적립예금	3,000,000	연구비	6,287,500
인출수입		연구비	6,287,500
		기타경비	353,220
		지급이자	239,990
		포교비	113,230
		예비비	620,000
		예비비	620,000
		투자자산지출	200
		유가증권매입	100
		임차보증금	100
		유형고정자산	7,962,104
		매입지출	
		기계기구매입	2,868,000
		비품및기기	255,000
		매입비	
총계	65,651,983	총계	65,651,983

'94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위한 이동 병무 상담실을 운영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1994. 5.24. 화(1일간)
 2. 시 간: 10:00~17:00
 3. 장 소: 혜화관 1층 노동조합사무실
 4. 상담요원: 서울중앙병무청공보실직원
1994. 5. 학생처장

제7회 학술강연회

주제: 인문학에서 본 카오스이론의 세계관
 강사: 최종덕(현 동국대·연세대 강사)
 일시: 1994. 5.19(木) 오후 4:00
 장소: 동국관 L308B
 주최: 대학원 학생회
 후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관심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10대 대학원 학생회

기획조정실

◇시리즈-전환기에 놓인 민족의 운명진단과 민족민주 운동의 방향

강대국 매판 세력간의 자본 유일 지배 전략

개방, 자유·합리주의로 포장된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문화 침투야기

클/심/는
순/서

1. 국가경쟁력
강화 ...
그 장미빛 환상

2. UR협상의
세계사적
의의

3. 제3의
길이란
없다

WTO의 출범과 미제국주의의 승리

미국은 이번 UR협상-WTO출범과정에서 최대의 이익을 챙겼다. 먼저 타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수산물등 제조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자유로운 자본수출의 길을 열어 놓았고 둘째, 협상국 전체의 무역관련 투자조치 및 보조금 철폐를 강제해 내고, 3R이라는 국제조약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자국이 후진·개도국의 상품시장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미국은 '국경없는 자유 무역 원칙을 주장하다가 자국에 손실이 예상되면 재빨리 국내법을 근거로 세워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UR협상이 종결되자마자 수퍼 301조의 부활을 선언하고 우리의 자동차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행태가 그 본보기이다. WTO의 서명을 늦추고 무역분쟁의 여지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쌍무협정을 대폭적으로 맺어 이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는 의도이다. 그 예로 후진·개도국에 밀려날 대

표적인 자국의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 수출 50여개국과 이미 쌍무협정을 맺어놓은 상태이다. 이번 UR협상 과정에서는 한때 세계질서와 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이제는 자국의 실리를 위해 명분이고 염치니 하는 것들은 다 쟁취 버린 미국의 이윤배반적 행각과 교활함은 누차 알려져 왔던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부추기며 다량의 공격무기를 팔아먹는 미국의 군사재벌들이 이미 세계의 군수·정보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타경제분야에서까지 이처럼 노골적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철저히 대미 종속화 되어있는 우리현실은 경제·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먼저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입을 경제적 고통을 살펴보자.

UR대풍에 희생될 민족생존권

정부의 농업포기 - 민족의 생존권
취급 흔들 제국주의 곡물상

쌀은 부분개방이 된다해도 미국쌀과의 가격경쟁이 될 수 없고, 그로인해 대부분의 국내농가가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런데, 세계 쌀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일본등의 거대곡물상이다. 카기를 비롯해, 콘티넨탈, 드레퓌스등 거대곡물상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크게 받는 쌀의 특성을 이용, 평상시에 사재기를 했다가 자연재해등으로 생산량이 감소되었을 때 반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

우리가 80년 냉해로 쌀수입을 해야했을 때 1당 2백달러 하던 쌀을 올려져자먹기로 이를 곡물파괴에가서 5백5십달러에 산 경향이 있다. 물론 이들이 개방초기부터 허리를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개방초기에는 국내가격의 1/3도 안되는 쌀 값에 반출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농가가 몰락해 쌀생산 기반기가 파괴될 때까지이다. 그 후로 폭리를 취할것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자유무역의 원칙이 잘 지켜져서 그때까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되지않겠느냐고 한다. 지역 순진한 발상이다. 국제 유통시장을 수년만에 완전통제 할 이들의 카드텔과 눈을 피해 어느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하겠는가? 생존권의 기본권인 쌀수입에 안달하는 나라에 또 어느나라인을 제값에 팔겠는가? 어쩔 수 없이 쌀수입 미곡물상의 이익에 민족의 생존권을 파는 처사이며 생산자의 우리농가의 몰락뿐만 아니라 수년만에 국민전체의 생존권에 절대적 위기상황을 창출할 것이다.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위기

93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약60%, 8백여만명이 3차산업 즉,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규모는 현격하게 영세하다

(현재 국내 소매업체 종업원수는 2인 이하 전체의 90%), 이런 상태에서 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은 일차적으로 영세상공인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것이다. 외국의 거대 유통업체가 대대적으로 체인망을 갖추고 대형매장을 세워 단기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대폭적인공세를 취할때 동네구멍 가게, 재래시장 등 대부분 영세자본인 우리 유통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덩치 큰 백화점은 현재 진흥양상에서 보여지듯 외국거대유통자본의 매수·합병 제안에 응하고 있고 그것이 곧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유통시장이 장악되면 연이어서 영세자본상공인이 몰락할것이다. 외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생필품(가구, 문구, 완구, 양산, 라이터, 면류, 도자기 등)은 현재에도 거의 50%의 공장가동률인데, 외국브랜드가 직접 자신의 생산품을 내다와 팔고 값싼 중국·동남아의 소비재가 밀려온다면 영세업자들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중국·동남아의 저가공세에 밀려 주요품목인 의류업과 전자부품업이 벌써 연이어 도산하고 있듯이, 판매부진과 수익으로 공장가동률 80%미만으로 내어 물리고 있다. 예를들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나무젓가락은 92년 한해 5백만달러치가 수입되어 국내유통분의 90%를 중국산이 점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문화산업의 주축인 영화, 만화, 보건의료, 통신, 관광, 운송, 교육 등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것이다. 그중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교육문제를 보자! 현재 미국의 교육재벌(대학자본)은 국내유수대학에 자교의 분교설치를 제외하고 있는데,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하고 소기의 과정을 수료했음시 토를, 캠퍼스스쿨의 면제를 해주어 자교로 쉽게유학을 갈 수 있게 길을 넓혀 준다 는 것이다. 참으로 달콤한 유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교육은 곧 돈으로 평가 시행되고, 이런 구조에서 자란 유학생이 앞장서 제국주의 문화의 전파자요, 선전대가 되어 돌아오는 자명한 사실이다. 광고육은 물론, 사고육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2조원이 넘는 국내 학원시장에도 외국학원기업이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어학, 컴퓨터, 예술학원은 물론 입시학원과 요리, 패션학원까지 광범위한 진출이 예상되는데 80~90%가 영세학원인 현실에서 영세학원의 미래와 교육현장의 미래는 자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UR은 결국 미국을 축으로한 제국주의 자본의 사회전분야에 걸친 침략일뿐이고, UR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은 매판재벌·정치인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소수를 위해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자체 국민대중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화, 세계화논리란 그럴듯한 포장으로 개방을(실제는 예측



◇국제화, 세계화란 논리로 포장된 UR은 더이상 개인 경쟁력 향상만이 아닌 민족 전체의 문제를 판단되어야 한다.

을)미화하고 있지만 개방은 결국 '국경을 넘어 오로지 이윤추구, 세계지배에 여념이 없는 제국주의국가'의 침략이요, 매판 세력의 자기보호를 위한 강변이상은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다시 '민족자주화'를 주창하며

세계는 바야흐로 하나가 되고있다. 정치·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을 제국주의 국가권력과 이를 내부에서 움직이며 경제적 약탈과 문화적 침략을 자행하고 있는 제국주의 자본에 의해 국경도 민족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 전의 제국주의는 힘을 통해 강압함으로써 식민지 민중의 저항을 받았지만 현재의 제국주의는 교묘한 사상문화의 침투로 식민지 민중의 저항자세를 원천봉쇄하고 있다(이것을 혹자는 문화제국주의라 부른다). 대중매체, 광고, 선전, 세속적 연예인, 세속적 지식인과 정치인 이들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라는 낯선 논리속에 할리우드와 CNN과 디즈니랜드가 침공하여 전통적 가치관과 민족적정서는 모조리 날고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분명 속임수다.

이번 UR협상이 그 대표적 예다.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및 일본이 이처럼 제3세계를 착취하는데 공격적으로 나선 예는 없었지만 그 진실은 국제화·개방화라는 속임수로 세계공동체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우리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거짓이 진실로 언론에 의해 포장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임수는 식민지 조국 우리 청년 학도 개개인에게도 다가서고 있다. '지역으로 출세하는 인간' '자기중심적 삶' '거침없는 자기표현'등 소위 말하는 신세대 개념이 그것이다.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문화의 침투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자유주의, 성공개념주의, 합리주의로 포장되어 거둬나고 있는 것이다. 나보다나 내가 속한 학원을, 사회를,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자는 역사적이고 진실된 삶의 교훈은 쥐도새도 모르게 제국주의의 장미빛 미사여구에 녹아나고 있다. 판단할 틈을 주지 않는것이 무서운 점이고 개방은 이의 가속화를 추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 자본·권력의 유일지배를 추진할 것이다. 민족의 경제가 예측되는 것보다도 정치권력이 예측되는 것보다는 더욱 무서운것은 이에서 비롯될 것이고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족의 상실이다. 이것이 제국주의에 예측되면 방법이 없다. 계속 재주만 넣는 꿈은 자신이 번 돈을 주인이 가져도 세게 받으면 그만이다. 검정만 빨강이라고 우기는 제국주의·매판세력의 논리에 '아니다, 검정은 검정이다'라고 단단히 일어서지 못하면 검정은 영원히 검정이 되지 못한다.

이제 더이상 UR은 제국자본과 매판세력에 의해 개인의 가치판단, 경쟁력만이 살길이라며 개방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 민족전체의 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져야 한다.

이번 개방의 결과는 민족의 생존권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매판재벌·정치인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할 의지도 계획도 갖고 있지않다. 제국주의 자본은 더욱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족자주화를 주장하는 것이 비진보적이고, 몰역사적인 인식이며 구태의연한 주장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저들의 논리에 길들여져 어떤지 그런 것 같을 뿐이다.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살아가고 책임지는 우리시대에 우리가 맨처음으로 할일이다. (사회부)

동국로 '동국이 자~유'

명달이네 선생님께서 짧은 글짓기 숙제를 내주셨다. '자유'를 넣어서 간단한 작문을 해오라는 숙제였다. 명달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놀라왔다. '명달아, 놀자' 할머니가 대답하셨다. "지금 명달이 자유".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명달이 시리즈' 중의 한편이다. 이 얘기는 탈문법한 언어유희로 만든 대화가 웃음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소위 '씹렁렁' 사람으로 비난받는 대화의 언어생활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

지난 11일부터 3일간, 물론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자유의 의미를 착각한 동양인들이 보였다.

대동제 첫째날 명진관 동국관 주변
"너무 비싸긴 하지만 축제기간인걸..." 지난해의 대동제와는 판판의 분위기로 학생들이 주점으로 모여들었다. 시가보다 확연히 높은 술값·음식값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가며 술잔을 비우는 이들, 쓰러져 잠을 자는 이들이 보였다.

대동제 둘째날 박 학생회관

한 강의실
"교수님, 오늘이 축제 마지막날인데 휴강하면 안 됩니까?" 한 학우의 발언에 강의실에 있던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강의는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

폐막제
3일간의 과정(7) 때문인지 '녹두거리 행사'는 무산되고 몇만되는 학우들이 모여 폐막제를 진행했다. 술을 마시던 사람들의 수에는 어림도 없는, 한판 어우러짐의 대동제는 이틀뿐이었다.

대동제가 끝난 교정
명진관 거울 일부가 깨지고, 각 건물 화장실의 문이 부서지는 한편 강의실 문까지 파손됐다. 각 건물앞에 명그대로 '신더미같은' 쓰레기가 길을 막고 있었다. (이유리 기자)

94학년도 후기 동국대

일반대학원

-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미술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 모집인원**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 시험과목 및 내용**
가. 석사과정
1) 시험과목: 영어, 전공, 구술고사
2)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각 학과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박사과정
1) 시험과목: 영어, 전공(공통, 세부전공), 제2외국어(해당 학과에 한함), 구술고사
2) 시험내용 가) 영어 시험은 4문항(독해력 측정)으로 출제되며, 전공시험은 학과 공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제2외국어 부과과목: 인도철학과, 불교학과, 철학과, 한의학과 다) 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일어, 일어, 법어, 한문 I, 한문 II (불교학문), 중국어 중 택일(단, 법어는 인도철학과, 한문 I은 철학과(동양철학전공) 한문 II는 불교학과 지원자에 한함)
-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94년 5.30(월)~6. 9(목)
나. 원서접수기간: 94년 6. 7(월)~6. 9(목)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부
라. 시험일시 및 장소: 94. 6.17(금) 10:00 동국관

전화 : 260-3093, 3094

불교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①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②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③ 불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5.30(월)부터 6.13(월)까지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월16(목)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 특전**
조계종 재적승려, 교원 및 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함
- ◇관리자 과정◇
① 지원자격: 조계종의 대덕 법계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실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자.
②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 동일
③ 전형일시 및 방법: 94년 6.17(금) 13:00,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화 : 260-3097.3098

행정대학원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① 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지역개발, 관공행정, 언론홍보
②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③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사법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경비행정
④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6.1(수)~13(월) 본 대학원 (단 토요일·일요일은 휴무)
 -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8(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필기시험, 구술시험(영어) 및 면접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면접
 - 특전**
① 공무원에게 졸업사거지 장학금 지급(수업료 30%)
② 우등장학생,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등 다수 장학 특전이 있음
③ 사회복지전공졸업자는 1급 복지사자격을 취득
- ◇관리자 과정◇
①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각군의 영관급이상 장교,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사기업체의 임원, 사회지도급 인사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②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6.1(수)~6.21(화) 본 대학원
③ 전형일시 및 방법: 94년 6.25(토)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화 : 260-3101.3102

학술 현장 - '개방화 시대의 민족 문화와 불교' 학술세미나

민족문화, 동·서양을 불문하고 공감대 형성할수 있는 문화 현실과 괴리된 불교...주체적 뿌리내림 위한 노력 필요

흔히 오늘날을 '국제화 개방화'시대라고 일컫는다. 국제화·세계화가 강조되면서 작년과 올해 사회를 뒤흔든 UR 파고의 후유증이 끝나기도 전에 GR, BR, TR, 등의 신조어와 함께 외세문화의 유입은 더욱더 증가되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외세의 문화에 빠져들면서 최근 민족문화자재에 대한 의미 상실은 물론 실지리를 잃은게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불교문화연구원 주최의 부처님 오신날 불교행사의 일환인 '개방화 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라는 주제의 불교학술 세미나는 잊혀져가는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현실과는 괴리된 듯한 불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지난 13일 10시쯤부터 시작한 이 세미 입문회(사학)교수와 민족문화의 개념을 중심으로한 서구문화와 전통문화 그리고 민족문화와의 연계성을 함께 설명하는 토론이 시작되었다.

"민족문화는 곧 전통문화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민족의 개념 자체가 없어 현대에 가까운 공감이 되는 문화로서 전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민족문화이고 또한 세계화인 것으로 문화 우열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단지 민족만을 주장하며 세계에서의 연계성을 간과하는 것은 개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포문을 열었다.



◇개방화 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라는 주제의 불교학술세미나가 지난 13일 동국관에서 불교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러한 서구문화와 전통문화와의 관계는 네번째 발제자인 이길용(사학) 교수에게서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이교수가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서양사만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본 세미나의 주제인 개방화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와는 상관없는 논지였다. 그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어느 정도의 민족문화의 개념정립이 있는 후 '민족문화=전통문화'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전통문화에 가정양함을 많이 끼친 일본문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마음을 읽었는지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공중원(조선일보 논설위원)위원은 한국문화와 일본문화의 필수불가결한 교류의 필요성에 불교하고 계속되는 두 나라간의 마찰원인 분석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엿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심부름적인 어구가 대부분을 차지해 '이렇다'할 대안을 끌어오지 못하여 본 세미나의 일관성을 찾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와 민족문화의 사회적 조망(김영태=불교학)'의 논지에서도 나타났다. 이른바 개방화시대와는 거리가 먼 신라와 고려시대에서의 민족문화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이후 토론의 자리에서 조선 그리고 구한말에서의 민족문화와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하기도 했으나 시간 관계와 발제자의 의도자체의 차이점만을 인정한 민족문화와 불교의 현대사적 의미는 조망되지 않은채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잠시시간이 이어졌다.

그 시간에 팩스를 통해 들어온 본세미나에 대한 의문사항에서는 '개방화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라는 주제의 부합되지 않는 발표만이 잇따랐다"는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세미나는 결론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결론을 엿볼 수 있는 발표는 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장)원장의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불교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지였다.

"민족문화이 창조는 적어도 사상적 유물들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따르는 것이고 문화창달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이라면 불교의 대원칙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가장 절실해 요구되어 지는 것은 주체적 문화의식과 다른지역의 문화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고민하고 탐구토론하면서 실천적 자기수양을 바탕으로 생활한다면 이것이 바로 민족문화의 세계화 개방화시대의 민족문화의 새로운 인식일것이다.

그러나 단하나 과제만 남는것이 있었다. 현실과는 괴리된 듯한 불교의 현사회에서의 주체적 뿌리내림을 위해 젊은이들의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한 젊은이의 바람이었다.

(양수정 기자)

컴퓨터이야기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인간과 컴퓨터 접촉 간소화

인간의 감각적 기능을 망라하여 특정 사안에 관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하도록 이끄는 시스템. 이러한 것을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고 한다.

시각·청각·후각 등의 감각을 실제처럼 느끼면서도 현실 세계의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가상체험에 몰입한 채 가상의 세계에서 온갖 체험과 실험을 해보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상현실의 장점이다.

가상현실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방향감각 등의 인간의 감각기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연구의 방향도 이러한 인간의 감각과 컴퓨터 매커니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인간의 두뇌와 거의 흡사하게 작용하는 '신경망컴퓨터'의 연구가 해당 연구기관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상현실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대뇌작용과 동일하게 수행되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가상현실 기술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난해하기만 한 인체공학적인 측면의 연구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에 기인한다.

인간이 실제세계의 환경을 인식할 때 받아들여지는 정보의 70%이상은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가상현실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마치 헬멧모양과 같은 헤드-마운티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HMD)는 인간의 눈처럼 3차원 영상을 감지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인간의 양쪽 눈의 정보원천인 수렴(Convergence)과 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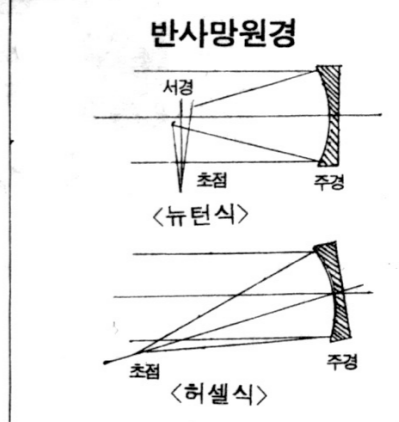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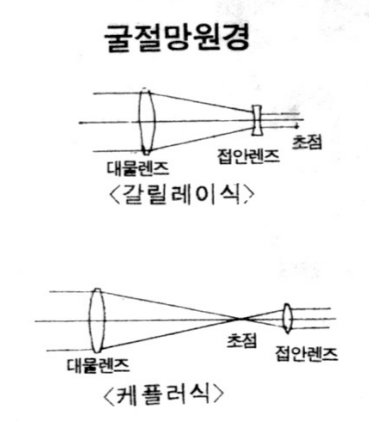
(Binocular Parallax)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시각체계에서 3차원 영상이 물체들의 상대적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빛과 그림자·원근감·깊이감 등이 컴퓨터에 주어졌을 때 컴퓨터는 비로소 2차원의 그래픽 이미지를 3차원의 형태로 보이게 만든다.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생동감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시야디스플레이 해상도·색상해상도·프레임속도의 4요소가 있다.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방법론적 구분에는 몰입형과 개방형이 있다. 몰입형은 사용자의 신체에 여러 장치를 부착해 가상현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예가 바로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가상현실본야의 시각용 인터페이스인 HMD로 이것은 양쪽에 컬러액정 디스플레이를 내장하고 있으며 상단의 헤드 트래킹 장치와 사용자의 위치와 방향을 추적하여 정확한 시야를 시뮬레이션한다. 개방형은 가벼운 복수안경을 쓰고 부분입체에 들어가 가상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몰입형보다는 표현력에서 뒤떨어진다.

아직까지 가상현실 분야는 비행운전 등과 같은 시뮬레이션 게임등에 주도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과 컴퓨터간의 접촉을 보다 쉽게 만들어 문명의 무한한 발달을 이루는 것이 가상현실의 궁극적 개발목표이다.

지동철 (대성교육출판 전산편집실 컴퓨터공학과 94졸)



의 크기도 증가시켜서 빛의 양을 크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로 망원경의 능력으로서 중요한 것은 가대이다. 가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은 모르나 가대 역시 위의 요소를 못지 않게 중요하다. 가대의 역할은 망원경의 흔들림을 최소화 함으로써 천체를 보다 더 정밀하고, 보다 더 안정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가대는 경위대식과 적도대식이 있는데, 경위대식은 일반 아마추어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상하좌우로 움직여 별을 찾는 방식이며 적도대식은 먼저 천의 북극을 맞춘 다음

별을 찾아 별과같은 원운동을 하는 것이다. 두 가대 역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목적에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면 천체 관측이 더 즐거울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망원경의 대략적인 역사, 구조 등을 알아보았다. 만약 당신이 직접 천체 혹은 일반망원경을 제작하여 본다면 위의 원리가 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이다.

김도역 (자연과학 연구회 천체분과)

과학 에세이

망원경 제작...보다 생생한 원리 과학

여러분은 망원경이라 하면 주로 영화속에서 해적들이 가지고 다니는 갈릴레이식 굴절망원경을 상상할것이다. 그러나 망원경 종류는 갈릴레이식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망원경이 발명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망원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원리로 작동되는지 알아보겠다. 망원경의 시초라 하면 갈릴레이가 만든 망원경을 상상할지 모르나 사실 최초의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의 안경제조업자 리퍼세이(Gispij Shey)가 우연히 두장의 렌즈를 끼고 물체를 볼으로써 발명하게 되었다. 이 망원경은 물체쪽에 볼록렌즈를 눈쪽으로 오목렌즈를 위치시킴으로써 약3배 가량 확대된 정립상을 볼 수 있는 굴절식 망원경이다. 이에 자극을 받아 이탈리아의 갈릴레이가 리퍼세이식 방식으로 약30배 배율의 망원경을 만들었으며, 그 후 대물렌즈(물체쪽 렌즈)와 접안 렌즈(눈쪽 렌즈)가 모두 볼록렌즈로 이루어진 굴절식 망원경을 1611년 독일의 케플러가 만들었는데 이는 갈

릴레이식 보다 시야가 넓고 색수차(렌즈를 통과한 상(像)이 선명하게 초점에 잡히지 않고 여러 거리게되는 것-를 줄인 것인데 단지 도립상(꺼꾸로 선 상)이 맺힌다는 아쉬움이 있다.

굴절식 망원경의 단점(색수차)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사식 망원경이 발명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오목유리 표면에 알루미늄이나 은으로 진공 코팅한 표면을 대물렌즈로 사용하는 망원경이다. 1668년 뉴턴이 처음 반사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이는 제작이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하여 아마추어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뉴턴식 망원경 이후 주경(뉴턴식의 반사경)이 반사한 빛을 부경(오목면경)으로 다시 한번 반사해 주는 그레고리식, 주경과 부경(볼록면경)의 초점이 일치하는 카세그레인식, 주경을 약간 기울인 허셀식이 발명되었다. 그리고 굴절식과 반사식의 장점을 모두 포함시킨 망원경이 만들어졌으나 지구대기 안에서 볼수있는 별

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로 망원경을 쏘아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허블우주망원경이다. 허블망원경은 카세그레인식 반사망원경으로서 지상천문대에서 보다 7배 이상으로 우주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그 크기는 전체길이가 13.3m이며 무게는 11.6톤으로서 고도 5백 95km의 궤도를 돈다. 그러나 이렇게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올렸음에도 광학을 이용해서 별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파를 이용한 전파망원경을 만들었다. 이 망원경의 원리는 우주에서 오는 미세한 전파를 잡아서 이를 다시 증폭하고 컴퓨터로 분석하여 관측하는 장치인데 이를 통해서 광파망원경으로 지적되어 알 수 없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망원경의 대략적인 역사 및 구조를 알아보고, 이제는 약간 세 부적으로 들어가 망원경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로 시계를 들 수 있다. 시계는 넓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넓을 수록

좋다. 보통 사람들은 크게 보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해보다, 무한히 멀리 있는 별을 관찰할 때 아주 큰 배율이 아니어서 배율에 관계없이 다같은 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시야가 좁을 땐 어느 한 별을 찾으려면 마치 모래사장에서 동전을 찾는 기분이 들 것이다. 보다 빠르게 별을 찾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가 필요한데 이를 넓히기 위해서 보통 접안렌즈를 교환한다.

배율은 대물렌즈의 초점거리 나누기 접안렌즈의 초점거리로 나타내는데 배율이 크다고 꼭 좋은 망원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렌즈의 크기를 고정시키고 배율만 증가시킨다면 시야는 그만큼 어두워진다. 그 이유는 대물렌즈의 크기에 따라 최대를 받을 수 있는 빛의 양은 한계가 있는데 무더대고 배율만 증가시키면 그 배율에 필요한 만큼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배율과 동시에 렌즈

학교 각대학원 학생모집

경영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연구과정
① 경제학과: 산업경제, 금융 및 재정
② 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실무, 무역보험 및 해운, 무역경영
③ 경영학과: 조직 및 인사관리, 생산관리 및 계량경영, 마케팅, 재무관리, 국제경영
④ 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⑤ 경영정보학과: 정보시스템, 경영시스템
⑥ 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⑦ 부동산학과: 부동산

2.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5.25(수)~6.3(금) 11:00~17:00 (단, 토·일요일은 교부만 함)

3.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1(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논술형(경영학원론) 및 면접
② 연구과정: 논술형 및 면접

5. 특전
① 해외 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② 조계중 재직승려, 공무원, 교직원, 공인 회계사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리더자 과정◇
1. 지원자격: 회사, 사회단체 대표 및 간부, 노조간부, 군 고급 장교, 정부각기관 5급이상 공무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과 동일
3. 전형일시 및 방법: 94년 6.11(토)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전화: 260-3105, 3106

교육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연구과정
①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상담교육, 유아교육
②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영어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가정교육, 전산교육, 종교교육, 미술교육, 한문교육, 체육교육

2.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5.23(월)~6.3(금) 10:30~17:00 (단, 토·일요일은 휴무)

3.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1(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전공기술 시험

5. 특전
① 공사립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 조계중 재직 승려등은 장학금을 지급함
② 공사립교육기관 재직교사, 정부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평점시 가산점을 부여함

전화: 260-3109, 3110

정보산업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연구과정
① 정보전산학과: 정보관리, 전자계산
②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출판잡지
③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

2. 원서 교부 및 접수
94년 5.23(월)~6.3(금) 10:00~17:00

3.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1(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및 면접(구술 시험)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①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군인, 국영기업체 종사자에 각종 장학금 지급.
② 출판잡지 전공자에게는 범우출판 장학금 지급
③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리더자 과정◇
1. 지원자격: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군인, 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과 동일
3. 전형일시 및 방법: 94년 6.11(토)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전화: 260-3115

산업기술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연구과정
산업학과: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건설공학, 화학공학, 식품공학, 산업공학, 농림자원, 재료공학

2. 원서 교부 및 접수
94년 6.1(수)~6.15(수)

3.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8(토) 14:00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①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와 장기 실무 경험자는 전형시 우대함.
② 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가산업체 및 유수한 기업체 중견간부에게는 각종 장학금을 지급함.
③ 재학시 총장장학, 우등장학, 외국인장학 등 각종 장학 특전 부여.
④ 해외 자매결연 대학 등에 연수 기회 제공.

◇리더자 과정◇
1. 지원자격: 공·사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 고급공무원 및 장교, 개인사업자 기타 이와 동등한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과 동일
3. 전형일시 및 방법: 석사과정과 동일
전화: 260-3602, 3603

지역개발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개발행정학과: 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사회개발

2. 원서 교부 및 접수
94년 6.7(화)~6.16(목) 17:00까지

3. 전형일시 및 장소
94년 6.18(토) 14:00 본 대학원(경주캠퍼스 진흥관)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① 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험자 전형우대
② 공무원전원에 제출시까지 장학금(수업료30%)지급
③ 총장장학, 우등장학 등 각종 장학특전 있음

◇리더자 과정◇
모집인원: 50명 내외
1. 지원자격
① 교졸이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②항의 자격을 고려한다.
② 자격요건: 정부 각 기관의 관리직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공공 및 사회단체의 간부
2. 원서교부 및 전형일시: 연구과정과 동일
3. 전형일시 및 방법: 석사과정과 동일
전화: (0561) 770-2091~3

달 하나 천 경에

‘문민’의 참뜻



제6공화국 2기,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에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가 여러개 있다.

그 가운데는 신한국, 개혁, 사정,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실명제, 문민정부, 국가경쟁력...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있고, 또 널리 쓰이는 새로운 용어는 아무래도 문민정부라는 단어가 아닌가 한다. 이 문민정부라고 하는 용어는 훗날 김영삼대통령 정부를 특징지우는 상징적인 한 단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문민정부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붙은 문민이라는 접두어는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하여 문민정부 이외에 문민시대 문민경찰 문민교육... 등의 많은 신조어를 낳았다. 가히 한 시대를 풍미하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문민정부라고 할 때의 문민이라는 용어는 대안에서 간행된 중문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다. 또 우리나라의 이회승 편저 국어대사전에,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에도,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에도 역시 들어 있지 않다. 이 사실은 우리 동양의 고전에 문민이란 단어가 사용된 선례가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쓰이지 않았던 단어로 보이도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전에는 문민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군인이 아닌 사람’(civilian)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일본 헌법 제66조 2항에 보면 문민자격이라고 해서 “내각 총리대신 그 외의 국무대신은 문민이 아닌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곧 문민이라는 말은 일본말이며 ‘군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여기서 문민정부라고 하는 용어를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등장한 이후 쓰여진 동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5.16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사실상의 군사정권이라고 본데서 기인한 것이다. 곧 1961년 5.16부터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상의 군인들에 의한 통치였고, 그 시기는 부정적이었으니 이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문민이라는 단어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등장하여 단행한 일련의 호소력 있는 조치와 함께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도 사이다.

여기서는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과 내각책임제인 일본의 헌법 헌법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일은 제쳐두자. 또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우리가 그 법률을 이어 받고자 하는 임시정부는 어떤 정부가 되는가? 이승만 정부는 그냥 독재정부라고 부르고 말아야 하는가? 4.19이후에 성립된 제2공화국 정부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도 우선 묻어 두자. 또 김영삼 대통령 정부의 초기 국무총리 황인성은 곧 출신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은 언급하지 말자. 적어도 이 단어를 처음 쓰는데 있어서 조심성이 매우 결여되었고, 또 일본에서 온, 일본에서 만 그들의 문화적 상황을 바탕에 깔고 쓰이는 단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한국학 분야에서는 일제시대에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여져, 우리나라의 문화적 현상에 대하여 왜곡되었던 것을 바로잡고 정리하는 과업을 수행 중에 있다. 잘못 사용된 일본말을 청산하는 작업도 그 중의 하나로써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이 작업은 그 과업이 너무나 방대하며 결과마저도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그러나 의식있는 사람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부단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견해가 현재로서는 훨씬 지배적이다. 김영삼 정부가 표방하는 국제화·개방화 물결을 타고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논의해보자는 매우 조심스러운 의견 개진도 있었다. 민자당도 이를 달론으로 시기상조라고 못 박고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민적 정서를 바르게 잘 파악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소위 문민이라는 말이 앞에 쓰이는 단어, 예를 들어 ‘문민정부, 문민시대, 문민교육 문민경찰, 문민시대의 국회상, 문민시대의 사법부...’ 현재 우리나라에 풍미하고 있는 소위 문민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서 함께 쓰인 모든 단어들은 그 쓰임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김 동 협 인문과학대 한문학과 교수

북한의 불교와 남북교류 - 첫번째

북한불교, 종파 구분 없어

보현사 주변 대규모 사찰 집중

불교가 공인된지 1천6백22년이 된 지금 침체일로를 걸어왔던 불교를 되살려보고 남북한이 불교계 공동의 목표아래 정진하기를 바라며 북한의 불교 그 사찰과 승려들의 모습을 살펴본다. (연필자)

이땅에 불교가 처음으로 공인된 후 올해로 1천6백22년을 맞았다. 그동안 이 나라 정신문화를 주도해온 불교는, 그러나 남북으로 나뉘어져 체제경쟁을 해온 지난 50년동안 침체일로를 걸어왔다.

지난해 가을 성철스님의 열반을 계기로 일기 시작했던 이땅의 불교중흥의 움직임은 올해들어 조계종 중흥을 둘러싸고 벌어진 초유의 법난과 불교개혁과정에서 벗어난 중흥발흥등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 부흥했던 시절에는 찬란한 불교문화가 빛날것하고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 뚜렷한 정신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채 방황하는 현대우리사회의 모습은 불교문화의 침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듯 싶다.

최근 몇년동안 우리민족의 또 다른 한 모습인 북한에서의 종교변화 특히 불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남북한의 불교계가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공동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 5월28일, 불기2537년 석탄절을 맞아 북한의 불교계는 평양의

광범사와 묘향산 보현사, 금강산 표훈사 등 전국각지의 사찰에서 스님과 불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북한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은 광범사법회에서 설법을 통해 세련이 정한 평화와 평등, 화해와 화합의 이념과 불살생의 계율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오늘날에 세련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설했다.

박태호위원장은 남북한과 해외의 불자들에게 김일성주석이 제시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지지하고, 90년대 통일달성에 크게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불교도연맹은 오늘 18일 불기 2538년 석탄절을 맞아 전국각지의 사찰에서 기념법회와 탑돌이등의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88년이후 매년 음력 4월8일 부처님오신날과 12월8일 성도절, 2월8일 열반절등 불교3대 명절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북한의 사찰에서 벌어지는 기념행사는 석문의법에 따라 진행되며 여기에는 예술공연 독경 참회 설법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찬불가 합창과 탑돌이등도 진행된다. 북한에는 현재 스님 3백여명, 신도만여명, 사찰 6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북한불교의 개괄적인 현황은 지난88년 8월 하와이 대원사 주지인 대원스님이 북한을 다녀온 후 북한불교관계자가 전해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불교와 관련된 이 수치는 최근까지 통일원과 정부산하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자료에 그대로 수록돼 있다. 북한불교에 관한 정보가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불교는 우리나라처럼 0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구별이 없으며, 지난 1945년에 창설된 ‘조선불교도연맹’이 주관하고 있다. 불교도연맹은 평양 모란봉구역에 있는 용화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올해 75세인 박태호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태호스님의 법명은 ‘학림’으로 1919년 함경도 길주에서 태어났으며, 금강산 보현사에서 득도하고 58년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했다. 박태호위원장은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두 아들을 둔 대처승이며, 불교

계 인사들에게는 대선사로 존경받고 있고, 불교계일에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등을 지내면서 상당한 고위층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도연맹은 승려양성기관인 불학원을 운영하며, 불학원은 3년과정으로 30여명의 3~4대 예비승려에게 경전과 의례, 독경등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로 보면 강원이나 행정교육원 셈이다. 북한원은 지난 91년초에 제1기 승려 30명을 배출하고 지난해까지 2기과정을 교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승려는 현재 3백30명에서 3백60명정도가 될 것이다.

북한의 승려는 일반적으로 대처승이나 노승중에는 독신 비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스님들이 독경을 할때 주로 금강경이나 천수경을 이용하며,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있다. 북한을 3차례 다녀온 법타스님은 북한의 스님들은 독경을 듣기 좋게 써 잘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초에 편찬한 ‘북한사찰연구’에 따르면 지

난1939년까지 북한에는 4백3개의 사찰이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경기도에 3개, 강원도 7개, 황해도 12개, 평안도 26개, 양강도 1개, 함경도 10개로 모두 61개의 사찰이 있다. 이가운데 개성에 있는 안화사와 황해남도 안악군에 있는 월정사는 지난89년에, 평양의 광범사와 정릉사, 평안남도 순천군의 안국사는 지난90년에 각각 복구됐다. 이외에 금강산의 장안사와 신계사가 지난해까지 복구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사찰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은 평안북도 함산군의 보현사로 주변에 10여개의 사찰이 집중되어 있고, 8만대장경영인본 보존고가 들어서 있을뿐만아니라 인공 불영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돼 있다. 때문에 보현사는 역사박물관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평양의 용화사는 최근 불교도연맹중앙본부가 들어서면서 불교의 총본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해 법당사무실을 새로 건축했다.

서상교 (불교신문국 보도부기자)

문화제국주의의 의미와 지배양상

선진국 국가이미지 제고에 문화산업 큰몫 “자본력·규모 갖춘 국내영화사도 파탄상태”

I. 문화전쟁시대의 개막

93년은 세계각국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문화력을 보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한해이다. 통합유럽체의 출범에 따라 유럽대륙에서 독자적인 유럽문화와 찾이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UR협상을 둘러싼 마.유럽의 문화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으며, 경제대국 독일과 일본이 문화강대국화의 경향을 여실히 드러냈다.

UR협상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문화전쟁은 작년 10월초 파리에서 클로드베리감독의 ‘제르미날’과 스티븐 스펄버그감독의 ‘쥬리아 공원’이 동시에 개봉되면서 극점에 달했다. 미국의 공룡이 프랑스의 광산노동자를 제압할 것이라는 일방적 예상과 달리 ‘제르미날’은 흥행에서 ‘쥬리아 공원’을 앞질렀고 이 기세를 몰아 프랑스는 ‘문화는 일반상품과 다른 정신적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대미협상에서 승리를 거뒀다.

일본기업의 할리우드 진출도 활발하다. 일본의 ‘미쓰시타’는 ‘MCA(유니버설 영화사)를 포함하는 그룹’을 ‘소니’가 ‘월렛비어’를 매수함으로써 할리우드의 7대 메이저 영화사 가운데 4개사가 외국자본의 소유로 되었다. 또한 일본이 ‘월드

즈니’사를 매수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으며 할리우드에 진출한 외국자본을 가리켜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문화의 야마당에 침입한 점령군”이라고 부른다.

21세기가 되면 방송-영화-통신 등 정보관련산업이 우주-항공산업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 미국의 영화산업은 매출액에 있어 항공산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렇게 산업계의 분석이 되고 보면 미국이 미소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화시대에 대비한 각국의 문화전략도 치열하다.

선진국들은 ‘문화투자만큼 수익성이 강한’ 부분도 없다며 경제적 이윤과 아울러 문화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트’ 광고 인기도 누리고 상품판매도 촉진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는 문화라는 것을 필자, 국가나 대기업차원에서 문화를 주력상품으로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예는 미국의 경우 마이클잭슨과 미키마우스가 ‘아메리칸이즈’의 대명사가 되어 자국의 이미지를 세계속에 심고 있고, 일본의 경우 만화영화 캐릭터와 컴퓨터 게임으로 이에 상응하고 있다는 면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II. 문화전쟁의 양상

아카데미상(배정 오스카상)의 대당 트로피 제작비는 60달러(95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작은 트로피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최소 1천만달러(80억원)의 흥행수입을 추가보장하는 상징물이다.

실상 아카데미 영화제는 미국의 ‘국내영화제’로 세계의 4대 영화제인 칸, 베를린, 베니스, 모스크바 영화제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영화업계, 정부와 언론은 삼위일체가 되어 일개 ‘국내영화제’를 범세계적 문화축전으로 인식케 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수상작을 관람함으로써 몸으로 홍보에 ‘한판’하는 것은 미국실리주의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전세계 영상산업의 메카로 ‘팍스 아메리카’의 미국정신이 숨어있는 미국영화의 위대함을 위해 아카데미 영화제는 초대형 홍보창고와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화염경’이 특별상을 수상한 베를린 영화제 역시 총성없는 한판의 문화전쟁이다. 베를린영화제는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에 저항하기 위한 유럽계 중심의

‘비주류연립’적 영화제이다. 아시아와 기타지역의 영화들은 본질적으로 유럽영화의 회생을 위한 대열에 들러리를 서고 있으며, 수상결과와는 이런 측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일단락된 UR협상의 ‘물밑 연장전’이 베를린 영화제를 통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다.

III. 문화전쟁시대의 우리문화 현실 -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92년 기준으로 외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82%, 수입편수의 반을 차지하는 미국영화의 점유율은 대략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88년 ‘위험한 장사’ 1편으로 시작해 불과 몇년만에 한국영화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한 지배영화의 급성장도 실로 엄청난데, 실제로 할리우드 지배사들의 92년 본사수입액은 91년치의 2배를 넘어섰다.

비디오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한국 비디오시장에서 외화의 점유율은 90%, 한국의 재벌그룹 계열사가 유통을 담당하는 미국 메이저 영화사의 점유율은 70%에 달하며, 92년도 본사수입액은 약4천6백만달러이며 이 액수 역시 매년 두배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영화의 상황은 어떠한가, 70년대 초반에 2백편이 넘게 제작됐던 한국영화가 작년에는 고작 65편만 제작되었으며, 그나마 이중 적잖은 수가 외화에 밀려 개봉조차되지 못했다. 92년과 93년 두해에 걸쳐 도합 22개의 국내 영화제 제작사가 도산했다. 총제작인 사들은 도산한 국내 영화사의 상당수가 한국영화계에서 나름대로 탄탄한 자본력과 규모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던 영화사들이란 것이다.

지금 할리우드는 고풍화TV의 시대가 개막되는 바로 그 순간, 위성을 타고 직배영화의 전세계 동시개봉이라는 야심만만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일본대로 영화제작과 배급시스템 전부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영상시스템과 하드웨어의 개발을 추진중이다. 소니가 할리우드를 매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시킬 기반을 얻기 위함이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영화, 우리문화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인가, 유감스럽게도 지금으로선 아무런 대안도 없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 밖에 없다.

박준 (대학원 연영과 석사과정)

SAMDO

젊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거꾸로 가는 시계, 리버퍼닉스의 아이디어, 깨워의 이방인, 번지점프, 비오는 흑백 필름,

M. 양C 의 입성심치어, 허치하이킹, 그리고? 써지오바렌테

Sergio Valente

대학생이 만든 써지오바렌테 광고 - ②

“써지오바렌테 때문에? 써지오바렌테 덕분에!”

써지오바렌테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고, 써지오바렌테 덕분에 무지하게 친해졌습니다. 때문에 추상했고 덕분에 신났습니다. 진짜 광고를 만든다는 게 쉬운게 아니네요, 학교 과제를 낼 때 내 아이디어가 최고의 비 아이디어라고 자신했던 거, 광고들을 보면서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그랬던 거 후회했습니다. 막상 끝내놓고 나니가 아쉽네요, 한번 더 하면 진짜 잘할거 같은데... 가까이 모델이 되어 준 선영이 수영이, 우리들의 기를 꺾고 살려주신 삼도물산, 한인기획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광고를 만든 사람들
이화여대 생활미술학과 4학년
구운선, 박수이, 서정희,
김수영, 사회체육학과 1학년,
황지아 최문우

◆ 취재특수

'94임석민주 대통령



○...경주캠퍼스 총학생회(회장=이영승·회계4) 주최 '94 임석민주대통령'이 지난 10일 전야제를 시작 지난 14일 백상연을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대통령제는 예년에 제기됐던 합력적인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살려 학생들의 자주성을 보장하겠다는 총학생회의 취지가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대통령제로 진행됐다는 평가와 함께 모든 학생들을 대통령에 참여시키겠다는 상설시장은 본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중론이 제기됐다.

○...행사 첫째날(11일)에는 우

천관계로 많은 행사가 연이 되었으나 민속극연구회와 사물놀이와 통영오광대 놀이가 오후 3시에 열려 살아숨쉬는 우리민족의 모습을 볼수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둘째날(12일)에는 동국인생 불림대회, 전통혼례, 필하모니 공개음악회 등이 열렸으며 불교문화대(회장=박치민·불교4) 주관 '종헌·종범의 개성과 종단개혁'이란 주제로 초청법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제에 맞는 강사가 없어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셋째날(13일)에는 동아리연합회(회장=심수민·동국연주회) 주관 동아리해방제, 언론협의회(회장=이근식·국문4) 주관 취

조경기능이 열렸다. 한편 법정책대 학생회(회장=차승렬·법4) 주관 임수경 초청강연회가 오후 3시 6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녹아원에서 열려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 대한 정부의 편파적시각과 평양축전 참가와 관련해 제기된 수감생활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2시간 가량 강연 학우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또한 총학생회(회장=이영승·회계4) 주관 '김광석, 정태춘 초청공연'이 1천2백여명의 학생·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문무관에서 열렸으며 알찬 내용의 공연이 됐다는 청중들의 반응을 얻었다.

○...네째날(14일)에는 대통령제 마지막 행사인 총학생회주최 백상연이 오후 5시30분 문무관에서 1천5백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백상연은 대금공연, 탈춤 공연 등 우리것을 보여줄수있는 행사에 비해 기성가수 콘서트공연을 무색케하는 공연이 많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94 임석민주대통령제는 극단 '애오라지'공연, 종단개혁 사진전·비디오 상영, 리더트리 모형전시회, 축제사진 전시회등의 문화행사로다는 유희적인 행사에 학생들이 몰렸으며 ICE 맥주 팔리마시기 대회등은 대학내 깊숙히 침투한 상업주의의 모습으로 비춰져 쓸쓸한 여론을 남겼다. 또 대부분 주점이 주점영업제한시간 새벽 1시를 지키지 않은점 역시 합력적인 대통령제를 부추긴 결과라 되기도 했다. (취재부)

총학생회장 사퇴이후 수습대책 마련 고심

총대의장 탄핵소추안 발의

제26대 총학생회장 사퇴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각 학생회가 고심하고 있다.

제26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고정환(아간경제 4)군은 "현 총학생회 집행부의 총 사퇴는 또다른 학생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끝까지 학생회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학생회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사퇴는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업위)시대 때문만은 아니며 그간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나 학생회 중간 체계가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에서라고 말하며 "이번문제를 계기로 학생회 주체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학생회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부총학생회장은 이번 졸업위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방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며 이는 선거공명제 실시를 통한 선거비용의 축소와

완전공개 그리고 정책에 의한 선거 풍토가 정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부총학생회장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학생회 일꾼 모두가 각성하고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학생대표자회의, 학생총회를 통해 문제를 공개하고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졸업앨범제작과 관련해 고부총학생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 임시 졸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군의 인준을 제안했으며 졸업앨범제작업체의 공개입찰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총대의원회(의장=한장섭·독문4)도 사태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대의원회 사무국장 이재관(정의 4)군은 "이번사태는 학생회 내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박현식·고정환 선거 운동본부 관련자들에게 대한 징계조치도 가해진 상태이며 새한스튜디오측으로 부터 받은 음선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26대 총대의원회 의장 한장섭군은 "학내 선거의 깨끗한 풍토 조성을 위해 선거공명제와 선거예시제의 실시 및 학생회의 발전을 위해 총대의원회를 전학대회로 전환시킬것이며 이를 위해 학생회칙의 전면적인 개정작업도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17일 문과대, 이과대, 경상대, 사범대, 예술대, 아간경제 총학생회등 6개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총학생회 투표용 왜곡, 총학생회취부시, 학부위선거개입, 졸업위 사건은패 의혹 등의 이유로 제26대 총대의원회의장 한장섭군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시작했다.

또한 6개단과대측은 지난 17일 열린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대책위를 제안했으며 오는 19일부터 총대의원회의장 탄핵소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학/전/무/대

무죄

○...학내 백상의 집안을 지나가는 두학우.

학우1: "저 집이 먹다남은 단무지를 다시 씻어내는 집이래, 참 문제야 문제"

학우2: "학생들이 남기니까 다시 씻어내는건 아닐까? 학생들이 더 문제야"

이에 대해 본 회전문무대자 한마디 "두분 학우님들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술박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라보일라"

은방울 원효관, 진흥관의 몇몇장소가 건물안내도에 표시되지 않아 학교를 찾은 외부인이 본 의아하게 술박꼭질을 해야 한다는데.

이유인즉, 자연과학관 완공이후 많은 공간들이 이동과 함께 새로운 공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안내도는 여전히 변동사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이에 안내도를 보다 한 학우알 "건물안내도를 보면서 숨은그림찾기까지 해야하니 과연 정도(正道)를 찾긴한 어려운 모양이네요"

한정생각, 학과생각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

은방울 대동제에 소재목이 하나 더 생겨났음.

다름아니라, 대동제 기간 중 무공해세제를 판매하는 곳, 매뉴얼을 분리수거 재생제재만들기 등을 실은곳, 빈캔들을 이용해서 주막알을 장식, 재활용을 강조한 곳등, 1회용품이 물론쓰 쓰여지는 대동제에 경중을 올리는 주점, 먹거리, 상가등이 많았다고.

이에 열심히 무공해세제를 팔던 학우알 "학과홍보, 환경보호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니겠어요?"

솔직한 대동제

○..."대동제, 이대로 좋은가"

새내기(7)들이 맞이한 첫 축제 는 부분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지게 했다는데.

대동제는 크게 하나됨이란 뜻인줄 아는데 하나가 되기는 커녕 각 과나 동아리의 주마, 분식점에서는 이윤추구에만 급급하고 일부 학생들은 적나라하게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대동제 문화행사 또한 다채롭지 못했다.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술문화는 그만 발달 시켜도 될것 같사오니 크게 하나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심이 어떨런지요?"

취업과 아르바이트 신청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대책마련논의로 불편 최소화 해야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신청업무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일 '시험감독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기위해 새벽 5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기다린 3백여명 학생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었다.

본관을 둘러싸고도 남을 긴 대열속에서 새치기가 범람하는 짜증스러움은 차치하더라도 매번 몇시간을 허비해야하는 것과 그나마 기다렸다가 앞에서 정원이 채워져 되돌아가야할 때를 기다린 시간들이 아깝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기다리는 시간동안 학생들은 이러한 불만과 함께 대안을 논의했고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고용, 접수당일 새벽 6시에 본관 앞이나 도서관앞에서 신청서를 배부하고 8시에 중강당에 모여 신청순대로 접수할 것'이란 결론

을 도출하여 즉석에서 55명의 동의서명을 받아냈다.

매번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위한 신청자 자신의 문제'로 치부될 수는 없다.

취업과(과장=황우열)에서는 "새벽 6시에 접수를 받는다고해도 이전부터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기다린 그시간을 보상하라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55명의 학생들이 서명한 그대안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는 것이 취업과 직원들의 주장이다. 따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그렇고 얼마나 그 아르바이트생을 신뢰할 수 있는나라는 논리이다. 이에 관해선 "신청자의 학생증 확인으로 이중신청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취업과에서 말하듯 선착순 신청은 어쩔 수 없는 갑갑하기만한 문제인지 모두가 생각해 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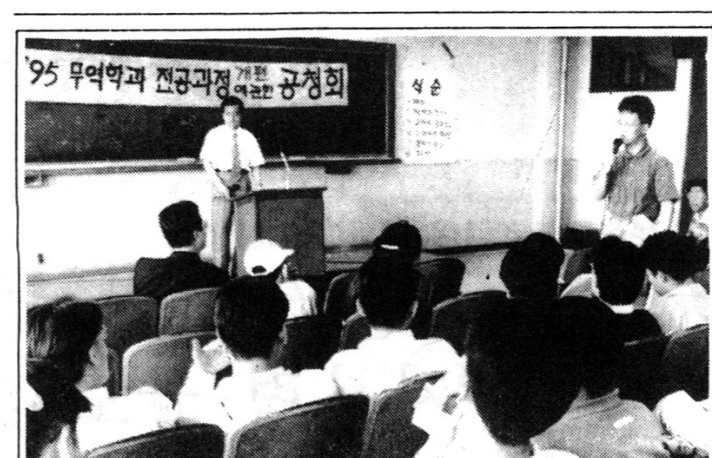
한다.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논리로 아무런 대책강구도 않는다면 학생들의 불편과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다."

한 학생은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소강당이라도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이번의 문제는 시험감독 아르바이트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취업과는 취업정보, 대책마련, 아르바이트알선등 학내어느곳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곳이다.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정하겠다"는 취업과 담당자의 말처럼 "문제가 생긴다면 아르바이트자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식보다 학생들과 함께 바람직한 대안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소영 기자)



교과과정 이렇게 바꿨습니다! 무역학과에서는 지난12일 교과과정개편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석종 기자)

교훈비 제막식 가져

경주캠퍼스 관재과(과장=정창현)는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 총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내사거리에서 '교훈비 제막식'을 가졌다.

지역개발대학원 총동창회 이두철 회장(삼창기업대표이사)이 기증한 이번 교훈비의 제막식에서 민병천 총장은 "건학이념에 따라 본교의 교육적 향상과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대학원 연구논문 공모

본교 대학원에서는 24번째 대학원 연구논문을 위한 논문을 공모한다.

본교 대학원 석,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거나 본교 대학원 출신 시간강사또는 본교 대학원 조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

임대매장 실태조사

공통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과대학생회와 문과대학생회에서 백상의 집을 상대로 제출한 공문을 기초로 학내 전임대매장의 실태조사를 오는 20일까지 마무리지어 경고, 시정조치등을 내리며 내년임대계약시 자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업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학부위와 연계하여 통계조사연구회 도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관위 위원회의 교수참여 문제로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 공

물리학과 40주년기념행사

물리학과는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문무선배와 함께 '4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20일에는 오전10시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21일에는 과학관 3층 물리학과 세미나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리학에 대한 일반인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강연 내용은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이 행사의 한 관계자는 행사취지에 관해 "그동안 원활하지 못한 학생회와 동문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40년 된 물리학과와 금지와 자부심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동국미전'개최

미술학과에서는 전시회 '동국미전'을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동국관 5층 로비에서 연다.

'동국미전'은 미술학과 학생회에서 주축이 되어 개최한 이래 해마다 계속된 행사이다.

변용필 미술학과 학생회장은 "일반학우에게 미술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대학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미술학도 서로간의 역량을 과시·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이 전시회의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또한 "이 행사는 타단과대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타대학교에 본교 미술학과를 알리는 대외적 행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1회 증구예술제(가칭) 기획광고

"저기 푸른산이 보이지?"

증구예술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논의속에 풍부화 되었습니다. 5월16일에는 예술대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예술제에 관하여 그동안 의견을 주셨던 여러분들을 모시고 1차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이후 관심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내 제반단체들과의 논의속에서 증구예술제 준비위원회를 대중적으로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준비위 일꾼들이 여러분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술대 교수 일동
제7대 예술대 학생회
예술제 준비를 위한 학생 문예 준비위

두 번째

◇ 학생회관 공간문제 진단

공간 없어 존립 위협 받는 동아리 있어

“문제 심각성 공유하는 토론 있어야”

지난 4월초 가동된 공간재배치연구위원회(위원장=송석구·철학)는 학내에 올바른 변화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강의실, 학생회실, 연구실등의 공간을 재배치하려는 연구를 하고있다.

학술문화관 건립까지 예술대생들이 쓰게돼 공간을 나누고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까지 겪었다. 한편 총학생회(이하 총여)는 지난 3년간 건설이 계속 무산되는 바람에 그공간을 현재는 '민중미술 연구회'와 '손짓사람회'가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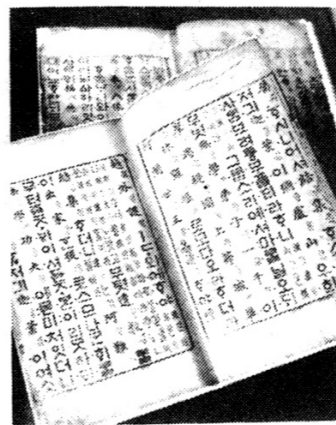
장실은 3·4층 화장실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것도 동아리인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어 공간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방법은 모든 사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더 짓는 것이겠으나, 재정상의 뒷받침도 문제이며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때문에 건물 짓기나 증축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동국기네스

9 석보상절(釋譜詳節) 23·24권

석존 일대기 다른 최초 한글 산문문학



문화재 지정: 보물 523호
간행연대: 1447년(세종29)
책크기: 가로 21.2 X 세로 30.5 cm
지질: 저지(紙紙)
소장처: 본교 중앙도서관

‘석보상절’은 조선조 제7대 왕인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부왕 세종의 명에 따라 찬술한 석가모니의 일대기이다. 수양대군은 모후인 ‘소현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고 불법을 널리 퍼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다.

회경 등 여러 경전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서 나타난 변상(變相) 여덟 가지, 곧 팔상도(八相圖)의 순서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석보상절’은 책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석가모니의 일대기 중 중요한 것은 자제히,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여서 기록한 것이다. 먼저 한문본을 만든 후 우리말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문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11이 현전한다. 원간본은 모두 보물 523호로 지정되어 있고, 중간본은 원간본이 출현할때까지 잠정적으로 위의 보물에 포함시켜 두었다. ‘석보상절’ 권23·24는 사찰의 세전본(世傳本)으로 보은 법주사, 청주 용화사, 안성의 칠장사를 거쳐 1967년 본교 도서관에 들어온 후 오늘날에 전한다. 두 책은 합쳐져 있는데, 권23의 앞2장과 권24의 뒤 1장은 낙장이다. 이 책의 공개로 원간의 권수가 모두 24권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의 피리독스

리차드 아텐브로 감독 ‘채플린’

채플린, 자유없는 대중 위한 영화제작
“무산자들이 지지한 천재 예술가”

금세기 최고의 예술가인 찰리 채플린. 무엇보다도 그에게 붙는 수식어는 천재이다. 하지만 음악가 모짜르트, 수학자 갈로와, 시인 램보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수식어, 천재가 채플린에 와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이란 수식어로 더 장식되어진다.

가, 가난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평생 그가 추구하는 일(영화)과 여자(여러 번의 결혼)에 대한 원동력 요인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색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도 상당하다. 가 건물이 지어지기 전의 예술대 공간 확보 투쟁이 그렇듯이.

이 영화를 보면 그 어떤 영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전율을 타고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에 보면 채플린은 과거에 자기가 만든 영화를 보면서 감회에 젖는 장면이 나온다. 그가 만들어냈고 그가 연기해낸 인물들은 바로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의 이웃들이며 위대한 인간들이다.

◇대동제 미담

대동제기간(11일~13일)에 벌인 사업 및 행사에서 나온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와 고아원 및 MBC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등에 보내 본교 내에 화사한 웃음을 선사한 과거 있다.

남에 팔 수 있게 도와주었다”며 고마움을 표한다. 한편 연극영화학과에서는 젊은 연극계에서 나온 수익금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 모금함을 설치해 마련한 기금, 과학생화학의 성금등을 불우이웃돕기에 쓸 예정이라고 한다.

김무봉 (문과대 국문과 감사)

메이리

진상규명

▲10년하고도 4년전 오늘 저 남쪽땅 빛고을에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땅의 민주를 외치는 민중들에게 근화를 신은 한 군인은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까불면 다 죽어...” 이렇게 화살은 시작되었다.

만족스럽지만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4천만민중이 원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김영삼 정권은 원래 진상규명이란 말을 두려워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진상조사란 말만 나오면 피하는 건 언제나 김영삼 정권적이다.

대 행위 금지조항 삽입과정, 김현철씨 사건등 무엇하나 속시원히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또 아쉬운대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상무대 사건의 국정조사가 내부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최경인 (47)



포마토 같은 기업? 애경입니다



석유화학 기초 원료와 합성수지등 기간 산업을 뿌리로 고품질의 비누·세제·화장품을 생산하는 애경

‘애경’ 하면 비누나 세제만 만드는 회사로 여기셨죠. 하지만 애경 그룹을 떠받치고 있는 주력 사업 분야는 기간산업인 석유화학 기초 원료 사업입니다.

애경의 회사들, 애경이 하는 일

- 종합생활용품 부문
● 애경산업: 국내 최초의 미향비누 '미향'을 비롯, 파스, 스킨, 하나로샴푸, 포인트등 고품질 생활용품 생산, 중등, 중등, 일본 수출
■ 첨단화학 부문
● 삼성화학: 석유화학공업 관련 상공부 등록 제1호 기초 원료사업 세계 3위의 무수알칸, 가스제 생산 수출기업
● 애경소재: 기존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무기화학물을 생산, 국내에 공급할 수 없는 세계 시장으로 수출
● 애경월: 합성 세제 중간원료 생산으로 수출 5백만달러 수출 수출주도
● 애경화학: 불포화 폴리머에서 생산 국내 제1위, 동남아시아 수출
● 애경공업: 선진 첨단 기술로 한국도로 업계의 선두주자로 커가는 기업
■ 유통, 레저 부문
● 광주개발: 국제 규모의 골프장, 중부사원 연수원을 운영
● 애경여행: 대안위소빙, 문화센터로 지역 발전과 국민건강을 추구
■ 포장재 산업 부문
● 상우산업: 합성수지를 원료로 한 생활필수용품 생산 전문 업체
● 코스피: 자동차용 충격 흡수재인 범퍼, 시트백과 완충포장재 생산
● 경신산업: 포장재 전문 생산업체로 생산 전라년의 자동차 시스템 도입



「밀알심는 마음으로」 애경의 정경신 회장을 아십니까? 여자는 한계를 극복하고 거대한 기업군을 일궈낸 드라마를 아십니까? 그가 이룩한 기업 신화의 비결과 평범하면서도 가슴에 와닿는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마침내 나왔습니다.